

“전공노 사무실 22일까지 폐쇄하라”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오는 22일까지 일선 시·군의 전공무원 노조(이하 전공노) 지부 사무실을 철거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전국 행정 부지사·부지사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전공노측이 지자체 내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접 오는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폐쇄 조치하도록 촉구키로 합의한 상태여서 지자체와 전공노간 충돌 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부지사·부지사들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미이행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광역 부단체장 회의에 이어 전남지역 22개 시·군 부지사·부군수들은 6일 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행정자치부가 불법공무원단체의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노조 자진 철회 및 전공노 사무실 폐쇄 등의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자체 행정력을 집중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된 17개 시·군 부지사·부군수들은 계고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전공노측이 사무실을 자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의 협조를 얻어 22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기 위

광주·전남 지자체, 계고장 보내 촉구 자진 철회 안하면 강제 폐쇄... 충돌 우려

한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광주시 동구와 북구 등 4개 구의 부구청장들도 지난 5일 부단체장 회의와 함께 15일까지 자진 폐쇄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2차례 보낸 뒤, 이에 전공노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22일 강제폐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9일 창원에서 열린 예정인

구하는 계고장을 2차례 보낸 뒤, 이에 전공노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22일 강제폐쇄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들은 9일 창원에서 열린 예정인

전공공무원노동자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과 관련, 주동자 및 지도부는 중징계하고 사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일반 노조원에 참여정도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남의 경우 “담양과 화순, 영광, 보성, 함평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시·군에 전공노 사무실이 설치돼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日 공산당 당수 첫 국회 방문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시이 가즈오 공산당 당수가 6일 오후 국회를 방문, 임재정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일본 공산당 당수가 한국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활력 잃은 전남 신활력사업

완도 ‘해조살 육성’ 부실 사업비 10% 삭감

나주·장흥·장성·신안은 보완 조치 받아

나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내 일부 시·군의 신활력사업이 부실하게 계획되거나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전남지역 17개 시군의 신활력사업 계획을 평가한 결과 완도와 나주, 장흥, 장성, 신안 등 5개 지역의 사업계획

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보완조치가 내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또 최근 5개 부진지역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심사결과 완도군의 사업추진이 부실해 전체 사업비 25억 원 중 10%인 2억5천만 원을 삭감조치했다.

완도군은 당초 해조살육성사업을 ‘바다 특산물을 이용한 해양생물 기

능성 식품 판매 체험센터’로 전환해 소도음 육성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어 사업비가 삭감됐다.

나머지 배산읍 육성을 추진하는 나주시와 홍길동 컨테츠사업의 장성군, 갯벌활용 신안군, 한방 약초산업 육성의 장흥군 등 4개 지역은 보완조치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낙후된 전국의 70개(전남 17개) 기초단체를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20억~3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노대통령 퇴임후 거주지 청와대, 10월께 최종 발표

청와대는 오는 10월께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머물 거주지와 주택 규모 및 형태, 경호원 숙소 등을 최종 확정,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현재 노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2~3군데의 후보지를 놓고 선정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최종 결정까지는 한두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달 중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퇴임후 귀향 계획의 일환으로 거주할 집을 고향에 짓기로 결정하고 봉하마을 일대에서 주택 부지를 물색해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용환 비지금’ 30억 행방 추적

■ 檢, ‘게임비리’ 문화부 공무원 등 계좌 수사

상품권 발행 관련 정관계 로비 자금 가능성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가 지난 2002년 30억원대 비지금을 조성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경품용 상품권 정책 실무를 맡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문화관광부 직원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용환 대표가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통해 60억원을 관리하

면서 30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문화부를 포함한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인 김대표가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문화부 담당 국장이었던 유진룡 전 차관과 다른 공무원 등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정보를 내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자료도 최근 넘겨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게임업체 등이 금품로비를 했다던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 문화부 공무원들이 표적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상품권 도입과 고시 개정에 관여했던 직원 6~7명의 출국을 금지한 데 이어 부정한 돈이 오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품권·게임기 업체들의 이의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 정영수 회장과 김재홍·박형준 의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쇼 출장 경비를 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회(한게협) 광흥식회장의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대세론은 희망적인 허구”

당내 ‘국가발전’ 토론회 ‘쓴소리’ 쏟아져

6일 한나라당 비주류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공동대표 심재철·박찬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집권, 확실한가’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대세론’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대세론은 희망적인 허구에 불과하며 현재의 보수색 강화 경향을 탈피해 중도층을 포섭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오히려 ‘3번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영준 국민대 교수는 “한나라당 대망론의 허와 실”이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학계 및 선거전문가들은 각종 선거의 압승을 근거로 제기되는 한나라당 대망론에 의의를 제기한다”며 “이는 대선승리의 청신호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눈을 멀게하는 독”이라고 주장했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은 “여당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에 대한 소속감이나 일체감이 훨씬 약해 보인다”면서 “당에 대한 비판에 무감각하고 한나라당이란 틀을 적당히 활용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신 울 명지대 교수는 “한나라당을 보면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개념을 아직도 1980년대식으로 바라보지 않나 의문이 든다”며 “전시작전권만 해도 안보란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2000년대 이후 개념인 평화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정기풍향계

與 ‘국민경선제’ 지역 토론회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후보 선정을 위한 국민개방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 토론회를 오는 12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예술의 전당에서 갖는다. 지역 순회토론회 첫회인 이번 토론회에는 김근태 당의장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300여명의 핵심 당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민노 대표 광주·전남 방문

○민주당 문성현 대표는 한미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7일 광주와 전남지역을 방문한다.

문 대표는 7일 오전 10시 30분 순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전남 도당 한미 FTA협상 저지 특위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오후 2시에는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예정이다.

김태홍의원 민생 체험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광주 북울)은 6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 두메김치에서 일일직원

힘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추다듬기에서 김치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원들과 함께 하며 민생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일일체험은 국회 방송 ‘행복공감 희망 1번지’로 방영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조사위’ 구성 제안

○유재신 광주시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교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시교육청 교구납품 비리와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사위는 전문위원실 검토를 거친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한 발의, 본회의 승인 등을 거쳐 구성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5년 전통의 복교당 안약방이 연구 개발한
장생·투홍 오가미 식용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장생·투홍 오가미 식용

TEL: 062-385-3303, 362-6900

인테리어

○시공, 수색, 리모델링
○장기, 사무실, 임대차
○물감, 도장, 인테리어 계통, 실내안공벽도, 문수, 문세 등 다양한 서비스

TEL: 062-511-6280

공무원 **부경철직** **중개사**

40년 권위있는 전문 교육기관

전남고시학원

TEL: 062-222-5105

Highly Nice Golf Tour

TEL: 062-225-5544, FAX: 062-225-5542